

정보화사회 광장

체신부

장·차관 새로 임명



彦鍾 전 전남지사가 새로 임명됐다.

宋新임장관은 사법·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한 수재형으로 62년부터 내무관료생활을 시작, 지난해 6월 전남지사에서 퇴임했다.

1백79cm의 훗칠한 키에 시골사람처럼 툭툭한 인상을 풍기지만 평소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것이 주위의 평.

지난 12월 27일 대폭 단행된 내각개편에서 체신부장관에 宋彦鍾



에 尹東潤 전 체신부기획관리실장이 발탁됐다.

尹新임차관은 행정고시로 관계에 입문, 24년간 체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체신

한편 지난 28일 대폭 개각에 이은 후속 인사에서 체신부차관에 尹東潤

관료로 신임장관을 보좌해 정보통신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사업 육성계획 마련

체신부는 대외개방에 대비, 국내 정보통신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VAN업체의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사업육성계획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지난 12월 29일 당초 92년 7월 이후로 예정됐던 단순전송서비스, 단순회선재판매 사업의 국내개방시기를 내년 3월로 대폭 앞당기고 국제 VNA사업을 내년 4월까지 국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에게 허용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정보통신안테나'란 참조)

한국전기통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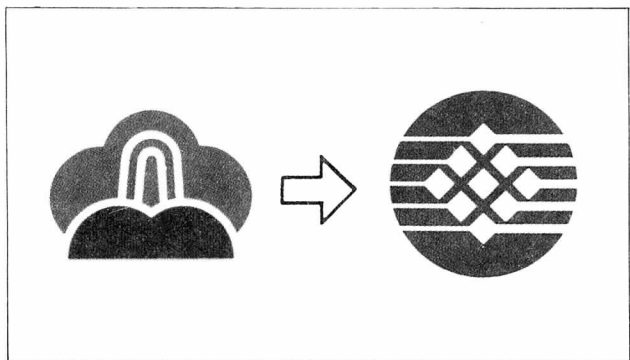
민영화 앞두고 기업변신에 박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기업약칭을 「한국통신(Korea Telecom)」으로 결정하는 한편 새로운 기업문화의 정립을 바탕으로 제2창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李海育 한국통신 사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사 창립 9주년을 맞아 '기업문화헌장 선언 및 CI(Corporate Identity) 발표식'을 갖고 기업이미지 통일화 계획(CIP: Corporate Identity Program)을 발표했다.

정보·통신·인간의 융화를 기업이념으로 선포한 기업문화헌장은 한계에 도전하는 세계적 첨단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통신사업의 운영, 고객과 함께하는 인간중시의 경영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개발된 CI품목은 국문과 영문의 회사명칭, 심벌마크, 공중전화부스등을 포함해 44개의 기본 품목과 각종 서식류·차량·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새로운 기업심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기업약칭을 한국통신으로 통일시키고 영문표기도 Korea Telecommunication Authority에서 Korea Telecom으로 변경했다)

유니폼등 58개의 응용품목을 합쳐 1백2개종에 달한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변화의 시도는 회사주인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통신사업 자율

화 정책에 따라 더이상 통신독점이 불가능한데다 국내 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지난 89년말 민영화를

위한 법개정을 끝내고 조직을 이미 사업부제로 전환시킨 한국통신은 앞으로 증시여건을 감안해 주식을 상장하는 것으로 민영화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 3 회 전기통신정책세미나 개최

— 관계기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밝혀 —

체신부는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 3 회 전기통신정책세미나」에 서 금년중 시내통화시분제를 17개지역에 추가실시하고 시외요금 거리단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TDX-10의 상용화, 16MD램 실용시제품 개발완료, 지능형컴퓨터, 행정망주선산기Ⅲ, HDTV전송 및 방송기술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자금을 조성하고 SW유통센터를 설립하며 통신요금 체계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기통신관계기관의 올해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공사

내년도에는 TDX-10 6만2천 회선을 포함해 2백68만회선을 전량 디지털교환기로 공급, 전화보급률을 1백인당 34대선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본 통신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한편 92년 임차위성서비스에 대비, 내년중 지구국 5개소와 소형위성 지구국 50개 가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TDX-1B를 이용한 종합정보통신망(ISDN) 시범망을 서울 강남-강북-대전간 확대 운용하고 대덕연구단지외 제주지역에도 ISDN 시범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과

부산에 한정 설치돼 있는 700 전용교환기를 광주 대전 대구 지역에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데이터통신

DNS서비스활성화를 위해 교환기설치 지역을 현행 24개소에서 28개지역으로 늘리고 부대장비 설치지역을 29개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와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LS)도 5개도시에 회선분배장치를 설치하고 T1단국장치도 38개지역에 설치, 고속·대용량의 음성혼합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이다. 국제DLS 역시 해외사업자를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려 고객의 수요에 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통신

내년중 동두천 태백 속초등 3개시를 추가, 전국 73개시 어디서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등 기존서비스지역의 통화품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중 이동전화의 카폰을 각각 9만대와 4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어서 내년말이면 각각 17만5천 및 77만6천 가입자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항만전화

일반전화가입자와 항만전화 가입자간 통화감도를 개선하고 향후 항만종합통신망으로의 전환에 대비, 교환기를 구내교환기에서 국설교환기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중 18억원을 들여 서울, 부산, 여수지역교환기를 국설교환기로 대체하고 연안선박자동전화와의 연동을 위해 식별번호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민주자유당

정보통신 진흥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20일 상공회의소에서 국회의원과 언론계·학계·산업계 및 행정부관계관 등 3백여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천년대를 향한 정보·통신진흥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민자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金泳三 대표최고위원의 격려사에 이어 金世源통신개발연구원장의 '21세기를 향한 정보·통신진흥전략'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당내 정보화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정보·통신정책 전담전문위원 임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도 체신부의 정보·통신정책기능보강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

행정망에 보안장치 설치키로

오는 3월까지 주민관리용 워크스테이션에 보안장치가 설치된다.

최근 내무부는 비인가자가 주민관리망에 접근, 주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누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관리용 단말기에 시큐리티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하고 한국조폐공사에 하드웨어 개발을, 주민관리종합추진반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각각 의뢰, 시스템입찰이 끝나는 2월부터 본격 설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조폐공사에 시스템입찰을 의뢰했으며, 조폐공사는 빠른 시일 안에 시스템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시큐리티시스템은 단말기용 XT와 호스트용 AT에 각각 카드 기록 및 관독기를 설치하는 이중보안장치로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시스템이다.

상공부

기술집약산업 7개품목 추가

상공부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평면브라운관 등 7개사업품목을 범개정을 통해 신규로 기술집약산업에 추가, 금년 1월부터 기술개

발준비금 적립한도를 4%까지 인상, 기술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새로 기술집약산업에 추가된 사업품목은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 평면브라운관, 25인치이상 대형브라운관, 자성재료사업과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 커넥터 등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와 재무부는 同7개 사업품목을 기술집약산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재무부가 이를 국무회의에 회부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同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同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로 추가된 이들 품목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4%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적립, 기술개발에 전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가 기술집약산업범위로 신규 추가된 것은 정보산업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DB, DP산업의 발달이 시급하며 특히 VAN과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긴요함에 따라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세청

컴퓨터로 통관절차 간소화하기로

최근 관세청은 통관기간 단

축 및 신고서제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관세청 주전산기와 관세사 컴퓨터를 연결, 신고자료를 파일전송처리하는 EDI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세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시간 및 인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방안을 내년상반기중 1~2개 세관을 선정,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 전국으로 확대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처

신임차관에 徐廷旭씨 임명



지난 12월 28일 대폭 개각에 이은 후속 인사에서 徐廷旭 전

한국통신 부사장이 신임 과기처 차관으로 임명됐다.

徐신임차관은 미국 텍사스 AM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공군사관학교 주임교수, 국방과학연구소장, 서울공대 강사등을 역임했으며, 국산전전자교환기 TDX시리즈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논리정연한 이론가이기도 한 그에게 기술관료로서의 역량이 기대되고 있다.

한·소 기술협력위한 기관장 회의 개최

과학기술처는 지난 12월 24일 한·소과학기술협력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 회의를 열고 협력 과제들을 소련측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그 경제적 성과가 2~3년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삼성전자, 소련우편통신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통신망 현대화 사업」등 4개 공동연구 및 기업화과제를 추진하고, 특히 소련기계연구소 측과 함께 한·소 공동컴퓨터 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소련의 기술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일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은 양국간 기술이전 창구로 활용될 「과학기술 협력센터」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하는 한편 모스크바기계연구소 등 11개 연구소와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이 동참하는 「극한치 기계엔지니어링 개발 및 상용화사업」등 30여개의 공동연구 및 실용화 개발사업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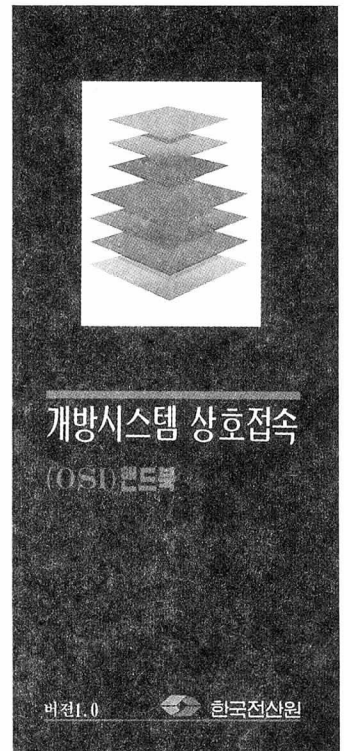
한국표준연구소에서는 주식회사 코닉스와 소련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레이저이용 비접속 진동측정장치 개발」등 6개 연구 및 기업화과제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국전산원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핸드 북 발간

한국전산원은 최근 개방시스템 상호접속(OSI) 기술의 최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국내의 정보기술(IT) 정책운영에 일조하기 위해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핸드북을 발간했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체신부의 지원하에 국가기간전산망에 적용할 한국정부 개방시스템 상호접속규격(SOSIP-K)을 작성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버전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다.



컴퓨터연구조합

한국형 퍼스컴 OS 개발

한국형 퍼스컴 OS(운영체제)인 「K-DOS」가 개발됐다.

컴퓨터연구조합에 따르면 K-DOS는 현재 퍼스컴용OS의 주류를 이루는 「MS-DOS」와 호환성이 있고 명령어를 한글화한 한국형OS로 국내업체들이 지난 88년 12월부터 공동개발에 나서 최근 1단계제품이 개발완료 된 것.

약 12억원을 들여 2년만에 개발한 「K-DOS」는 MS-DOS와 호환성을 갖춘 브라질의 LJ-DOS기술을 20만달러에 도입, 개량한 것으로 과기처의 자금지원(3억5천만원)아래金星소프트웨어 한국정보시스템 상운등 3개社가 개발에 참여했다.

한국형 OS가 개발됨에 따라 전산망조정위원회는 금년부터 교육망, 행정전산망등에 본격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K-DOS는 기존의 한글MS-DOS와는 달리 명령어까지 한글처리가 가능해 국민학교 4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교육을 우리말로 가르칠 수 있다. 예컨대 주요명령어가 기존의 「CALL」 「COPY」 「DEVICE」등에서 「호출」 「복사」 「목록」등 한글로 표기돼 있다.

컴퓨터연구조합과 개발참여

업체들은 이번 1단계 완성에 이어 2단계로 91년부터 92년 말까지 50억원(과기처지원 15억원)을 들여 멀티유저(여러사람이동시에 사용) 기능과 멀티태스킹(한꺼번에 여러 작업수행) 기능을 갖춘 고성능퍼스컴 OS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퍼스컴OS시장은 미국마이크로소프트社의 MS-DOS가 독점, 퍼스컴을 생산하는 모든업체들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MS-DOS를 사용해왔다.

한국퍼지시스템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퍼지이론이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산업분야에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응용방법 연구를 통해 전파할 한국퍼지시스템연구회가 창립됐다.

지난 12월 8일 상오 여의도 사학연구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출범한 한국퍼지시스템연구회는 초대회장에 卞增男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선출하는 한편 정관과 9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시스템공학센터

영어학습용SW 개발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용 소

프트웨어가 국내 최초로 개발돼 향후 중고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센터(소장 成기수)는 최근 중학생들을 위한 영어코스웨어(학습용 소프트웨어)인 컴퓨터 가정교사 시스템(Ⅲ)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스템공학센터(SERI)의 전산교육실 金문규 실장팀은 지난 87년 6월부터 과기처 특정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과학, 수학, 영어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 이미 과학과 수학의 코스웨어 36개 패키지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중학영어 과정 일부를 수록한 12개 패키지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영어 학습용 소프트웨어는 수학 및 과학용과는 달리 음성처리 기술을 활용, 英美人の 발음을 직접 들으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가 컴퓨터와 대화형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과 개인별 학습진도 및 성적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영어 코스웨어는 허큘리스 보드를 지원하는 16비트 IBM 호환기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음성발생기용 칩을 포함해 패키지당 1만원대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